

제 3 회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교양교육혁신 학술대회 <교양교육의 외연확장을 위한 새 주제와 방법>

일 시 : 2021. 12. 11(토) 13:00~17:30

진행방법 : 온라인플랫폼 ZOOM 개최

주 최 :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대학교육혁신단

주 관 :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대회 일정표

시 간	주요 내용
12:30~13:00	온라인 등록
13:00~13:10	개회사 및 인사말_ 송석량 센터장
13:10~13:50	[발표 1] “웰다잉 융합연구소와 웰 에이징” 발표: 김광환 (건양대) / 토론: 구진희 (목원대)
13:50~14:30	[발표 2] “노년의 인문학: 『레 미제라블』과 프랑스 근대사” 발표: 박아르마 (건양대) / 토론: 정해수 (목원대)
14:30~14:40	휴 식
14:40~15:20	[발표 3] “공자의 공부법을 활용한 교양교육 연구” 발표: 서원혁 (충남대) / 토론: 김희 (신라대)
15:20~16:00	[발표 4] “현대한국화에 대한 미술감상교육의 방향” 발표: 허나영 (목원대) / 토론: 우선미 (한남대)
16:00~16:10	휴 식
16:10~17:30	종 합 토 론

사회
유경아(목원대)

사회
연용호(목원대)

순서

- “웰다잉 융합연구소와 웰 에이징” 발표자료 (김광환, 건양대학교 교수)..... 03
- 토론문 (구진희, 목원대학교 교수)..... 17

- “노년의 인문학: 『레 미제라블』과 프랑스 근대사” 발표자료 (박아르마, 건양대학교 교수)..... 18
- 토론문 (정해수, 목원대학교 교수)..... 32

- “공자의 공부법을 활용한 교양 교육 연구” 발표자료 (서원혁, 충남대학교 교수)..... 34
- 토론문 (김희, 신라대학교 교수)..... 43

- “현대한국화에 대한 미술감상교육의 방향” 발표자료 (허나영, 목원대학교 연구원)..... 45
- 토론문 (우선미, 한남대학교 교수)..... 61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와 웰에이징

발표자 건양대학교
김 광 환

2021. 12. 11

건양대학교 융합 연구팀

인문학

김문준 (한국철학)
송현동 (철학/죽음학)
박아르마 (문학)

보건의료

강경희, 김설희(치위생학)
김두리, 임호남 (간호학)
황혜정 (보건학)

사회과학

김용하 (의료경영학)
안상윤 (사회학)
이종형 (통계학)
조지용 (사회복지학)



(NRF-2020S1A5C2A04092504)

01 연구소 소개

01 웰다잉 융합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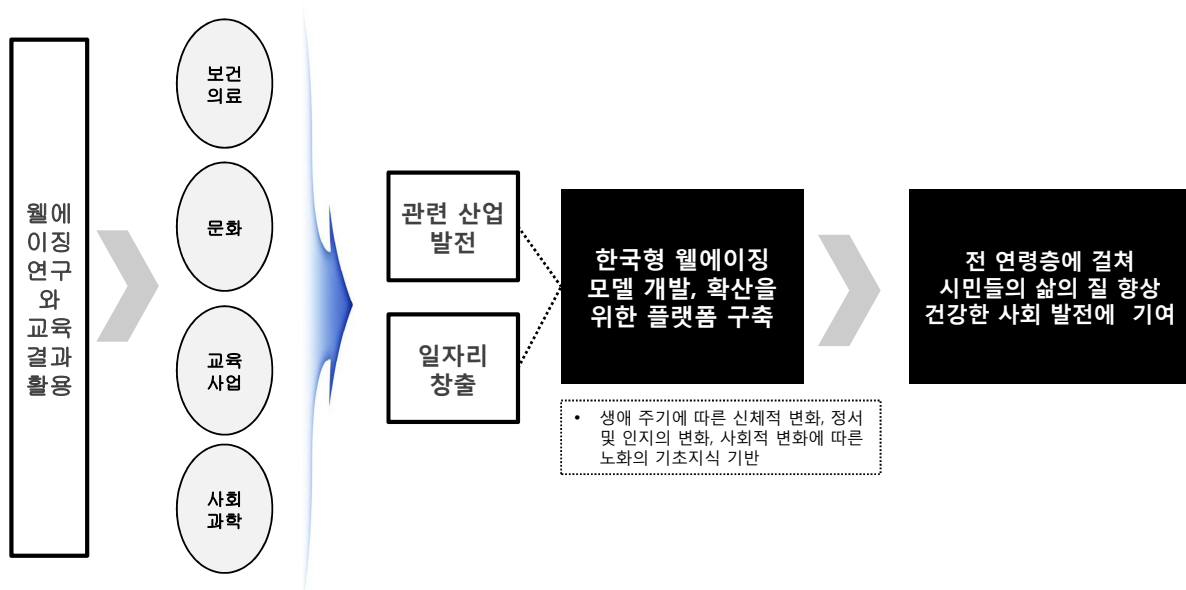


“ 인간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혁신대학 특성화에 부합하는 연구소 ”



2

01 웰다잉 융합 연구소 설립 배경 및 목적



3

- 2021년**
- 돌봄인력 1차년도 교육실습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연구용역 연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서울 연구소 개소
- 2020년**
- 사단 내 외진버스용 민간버스 용역 도입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진행
 - 서울시 20년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계획 용역사업 진행
 - 돌봄인력 실습콘텐츠 개발 및 민간기관 교육 수요조사 사업 진행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교육연계형) 3년+3년 선정**
- 2019년**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조사 및 실천방안 개발 연구**
 - 의료인, 사회복지사, 학생 대상 죽음교육을 위한 대상별 교재 총 3권 발간
 - '융합연구방법론(차이가 만드는 기적)' 저서 편찬
- 2018년**
- '웰다잉이 뭐예요' 청소년 대상 웰다잉 만화책 개발
 - '웰다잉의 이해와 실제' 저서 편찬
 -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문학 기반 완성적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2단계 2차년도)**
- 2017년**
-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문학 기반 완성적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2단계 1차년도)**
 - 국가 단위 죽음 및 웰다잉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내 인생 저 만치에 죽음이' 저서 출간(**2017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 2016년**
-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 '지혜로운 삶을 위한 웰다잉' 저서 편찬, 지적재산권 등록, 보고서 출판
 - 건양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힐링과 호스피스', '치매와 가족', '삶과 죽음의 인문학' 강좌 개설
 -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새싹형) 사업 선정**
- 2015년**
- 웰다잉 융합연구 교육센터 설립 및 홈페이지 개설
 -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DACUM기법을 활용한 사회복지사 대상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무분석" 우수논문상 수상
 -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웰다잉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인식 분석" 우수 논문상 수상**
 - 건양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삶과 죽음의 인문학', '죽음학', '힐링과 호스피스' 강좌 개설
- 2014년**
-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씨앗형) 3+2년 사업 선정**, 웰다잉 융합연구 교육센터 설립 추진단 구성
- 2013년**
-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선정**(의료 인문학에 기반을 둔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 새싹형

I

사업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과학적 합리성,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상상력과 통찰력, 예술적 창조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의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와 교육을 연계하여 중장기적 학제간 전문인력 양성

2. 중점 추진방향

- 인문사회, 문화, 예술과 과학기술과의 학제적 융합연구 활성화 추진
 - 새싹형 중심의 체계적 융합연구 지원을 통한 범공동체적 사회문제 해결
- 교차 및 통합강의 등 연구와 교육간 연계를 통한 융합 연구 활성화

3. 연구분야 및 연구대상

- 지원분야 : 인문사회(예술·체육학 포함)와 이공계(자연공학·공학·의약학·농수해양)의 융합분야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 소속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

4. 새싹형 연구 유형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새싹형	연 180백만원 이내(간접비 별도)	3(+2년)	

○ 지원유형

- 새싹형 : 중장기 학제간 융합 연구 지원 사업(연구책임자 포함 6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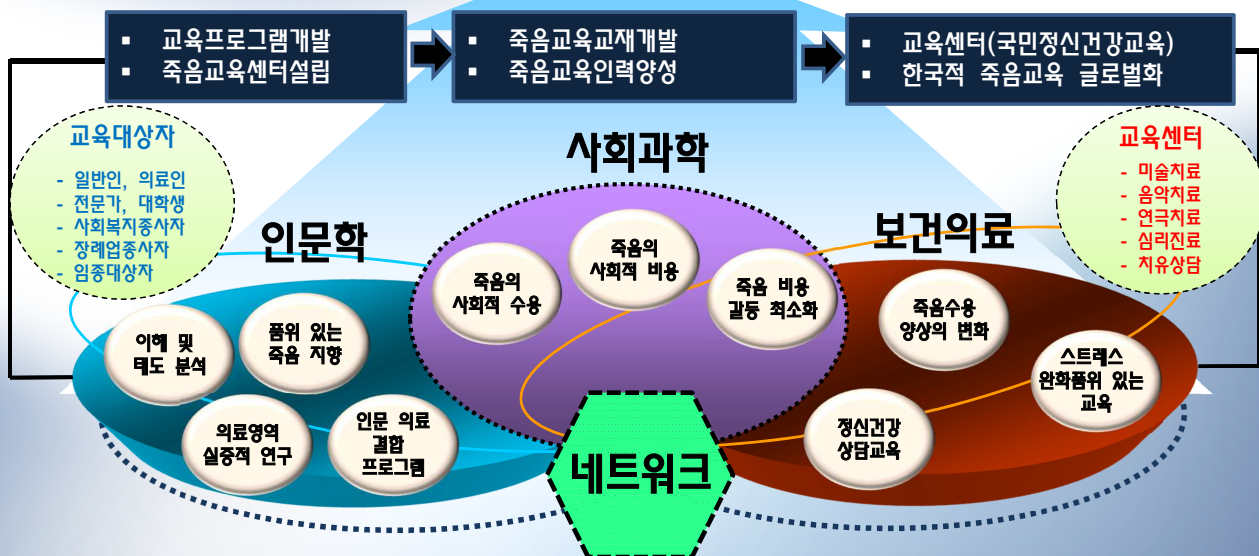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I . 새싹형 1단계

I . 새싹형 1단계

비전과 목표

한국인의 죽음문제에 관한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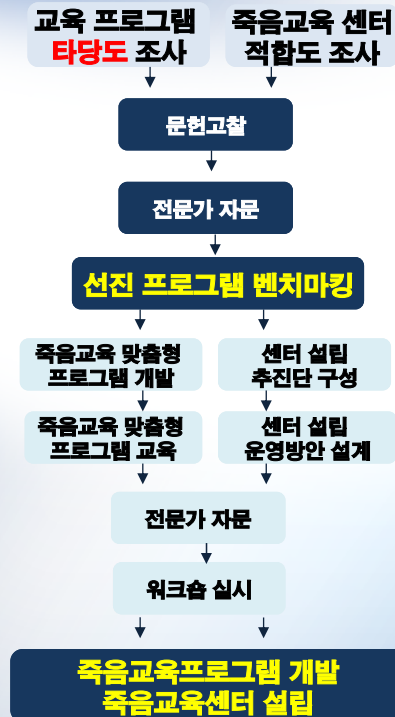


전국민의 행복한 죽음의 사회적 수용 확산

I. 새싹형 1단계

1차년도 연구방법 및 내용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죽음교육 센터설립**



죽음교육 프로그램(강의계획서) 개발

대상별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설문

- 대상: 의료인, 일반인, 대학생
- 방법: 씨앗형 설문조사 결과 반영

관련 기관 설문 조사

- 대상: 죽음관련 기관, 상조회사, 장례식장
- 방법: 방문 자기기입식 방법

전문가 워크숍 실시

- 대상: 호스피스전문가, 장례업 종사자, 학계전문가
- 방법: 워크숍

죽음교육 센터 설립

선진 교육프로그램 검토

-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교육프로그램 검토
- 방법: 선진국의 우수 죽음교육 센터 검토

센터설립 추진단 구성

- 대상: 죽음관련 기관장, 교수, 민간단체장
- 방법: 추진단 구성 후 설립 적합도에 대한 조사

죽음교육센터 설립

- 전문인력, 전담인력구성
-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부합하는 센터 설립 (접근성, 수용성, 활용가능성)

I. 새싹형 1단계

1차년도 연구성과

1단계 1차년도

교육 프로그램 타당도 조사

- 전문가 자문 10회
- 선진프로그램 벤치마킹(프랑스, 독일)
- 프랑스 죽음준비국가연맹(JALMALV)과 협약

대상별 죽음 교육 프로그램 직무분석

- DACUM기법 설문조사 4회 실시
- 일반인, 의료인, 학생, 사회복지사 대상

죽음교육의 타당성 연구

- 대상별 설문조사 5회 실시
- 일반인, 의료인, 학생, 사회복지사, 웰다잉강사대상
- 워크숍 3회 실시

자문회의

- 각당복지재단 방문

홈페이지 제작

- 죽음교육센터 홈페이지 제작

대학 교양 강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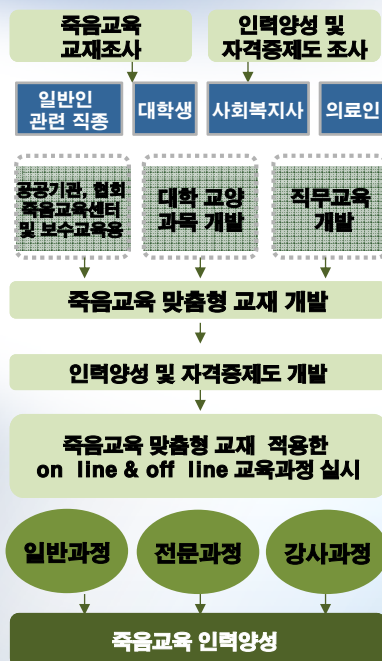
- 교양강좌 개설 4강좌

-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웰다잉 수업길라잡이> 발간
- 학술 논문지 게재 4건
(등재지 - 2건, SCOPUS - 2건)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7회
(국외 - 3건, 국내 - 4건)
- 언론홍보 8회
- 융합연구팀 주관 포럼, 워크숍, 세미나 개최 3회
- 협약 및 MOU 실적 2건
- 융합연구 회의 17차 진행됨
- 대학 교양강좌 개설 4강좌



2차년도 연구방법 및 내용

죽음교육 교재개발 인력양성



죽음교육 교재 개발

대상별 죽음교육 교재 개발

- 대상: 의료인, 일반인, 대학생
- 방법: 전문위원 구성 후 DACUM 기법 활용한 맞춤형 교재 개발

1차 on & off line 교재 개발 후 예비 교육 실시

- 대상: 의료인, 일반인, 대학생
- 방법: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 후 설문 실시

2차 개발 교재에 대한 수정 보완 후 교육 실시

- 대상: 의료인, 일반인, 대학생
- 방법: 교육 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죽음교육 인력양성

개발된 교재를 활용한 죽음교육 전문가 양성

- 방법: 개발된 프로그램과 교재를 활용한 전문가 양성

교육기간 및 전문가 수준에 따른 단계별 자격증 개발

- 방법: 일반과정, 전문과정, 강사과정

민간자격증 등록 및 자격증 활용방안 모색

- 자격증의 공인 인증
- 개발된 자격증의 전문화 및 활용방안 모색
-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2차년도 연구성과

1단계 2차년도

죽음 교육 교재 비교분석

- 전문가 자문 4회
- 선진프로그램 벤치마킹(미국, 캐나다)
 - 선진 죽음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등 방문

대학 교양 강좌 개발

- 교양강좌 개설 2강좌

교육효과 및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3회 실시

워크숍 및 융합회의

- 국내외 워크숍 4회 개최
- 융합연구 회의 15차 실시

지식재산권(저작권)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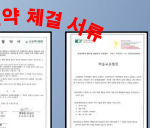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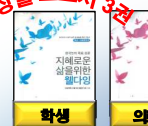
- 강의계획서 지식재산권 등록 1회

MOU 체결

- MOU 체결 3건

- 죽음교육 교재 개발
 - <지혜로운 삶을 위한 웰다잉> 발간
- 학술 논문지 게재 6건 (SCIE - 1건, SCOPUS - 5건)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6회 (국외 - 5건, 국내 - 1건)
- 언론홍보 25회
- 융합연구팀 주관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4회
- 협약 및 MOU 실적 3건
- 융합연구 회의 15차 진행됨
- 대학 교양강좌 개설 2강좌

지혜로운 삶을 위한 웰다잉



3차년도 연구방법 및 내용

- 교육센터(죽음준비교육센터)
- 한국적 죽음교육 글로벌화



행복한 죽음의 글로벌화 기초 토대 마련

죽음교육 센터 전국 확대 및 다문화

죽음교육센터 전국 확대 방안

- 대상: 의료기관, 민·관·학, 다문화 기관
- 방법: 죽음관련 기관의 조사 및 연계 기관의 특색에 따른 죽음교육 센터망 설계

죽음교육학회 설립으로 특성화, 전문화 도모

- 방법: 센터망 설계에 따른 인프라 구축 후 전문화 실시

다문화 지원센터와 연계 한국적 죽음교육의 글로벌화

- 방법: 전국 다문화 센터 연계 다국적 죽음관 연구 후 체계화 글로벌화 실시

국제 죽음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선진지 견학 국가와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 방법: 프랑스 - 죽음준비 국가 연맹(JALMALV), 미국 - 비탄 치유 센터(Center for grief services)
- 국제컨퍼런스 및 선진화 세계화 실시

3차년도 연구성과

1단계 3차년도

웰다잉 저역서 기획 및 발간

- 웰다잉 워크숍 3회 개최
- 행복 관련 설문조사 1회 실시

교육지침서 지식재산권 확보

- <지혜로운 삶을 위한 웰다잉> 저작권 3건 등록 - 학생, 의료인, 사회복지사 대상

워크숍 및 융합회의

- 웰다잉 워크숍 3회 개최
- 융합연구 회의 현재 14차 진행됨

국제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 MOU 체결 1건

교육효과 및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3회 실시

대학 교양 강좌 개발

- 교양강좌 개설 4강좌

- 웰다잉 저역서 개발 - 번역서, 에세이 등 3권 발간

- 학술 논문지 게재 4건 (등재지 - 2건, SCOPUS - 2건)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6회 (국외 - 3건, 국내 -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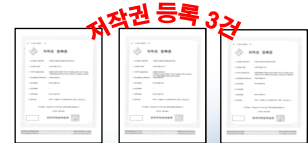
- 언론홍보 13회

- 융합연구팀 주관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3회

- 웰다잉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 일본(삿포로)

- 협약 및 MOU 실적 1건

- 죽음관련 특강 2회



I. 새싹형 1단계

1단계 연구성과 (총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학술논문(학진등재지) (SCI, SCOPUS)		4	6	4	14
지역서		1	1	3	5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국외	3	5	3	11
	국내	4	1	3	8
연구성과 발표내용	협의회, 성과발표회	3	3	2	8
	워크숍, 심포지엄	3	4	3	10
	연구관련 교차강의	3	2	3	8
연구목표	죽음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	-	1
	센터 설립	1	-	-	1
MOU 및 협약체결		2	3	1	6
석·박사 인력양성		2	-	2	4
특강		3	2	2	7
수상실적		3	3	2	8
언론홍보		8	25	13	46
융합연구회의		17	15	15	47
지식재산권		-	1	3	4
보고서출판		-	3	-	3

I. 새싹형 1단계

새싹형 연구실적(총괄)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Ⅱ. 새싹형 2단계

Ⅱ. 새싹형 2단계

2단계 연구의 목적

죽음교육을 위한 전국 단위 연구 및 교육기반 구축

- 표준화된 웰다잉 측정 도구 개발
- 국가단위 웰다잉 조사 및 모니터링
- 온/오프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 KMOOC 개발

죽음, 웰다잉 국외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 선진국형/전통형 웰다잉 프로그램 탐색 및 교류
- 웰다잉 교육 연계 및 교육 자료 제공
- 국외 연구 지원 기관 연계

1차년도 연구내용

‘죽음과 웰다잉’ on/off 기반 교육 확대 및 강화

세부 연구 주제	대상 및 기관	연구내용 및 개발 방법	기대 성과
Online 교육과정 확대	Cyber대학 평생교육원	일반인	전문교육과정 : 교육 60차 시, 실습 16시간
	Cyber대학	국내 재학생	Cyber대학 웰다잉 강좌 개설 : 14주차 강좌
	KMOOC 개발 Online 대상자 확대	전문교과목 확대 > 수강자 기본과정 인정 > 전문과정 OFFINE 실습병행 > 강사과정 OFFINE 실습병행	웰다잉 on line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Offline 교육과정 강화	보건의료인	직무교육	건양대학교병원 적용 실시
	학생		대학 웰다잉 교육강좌 개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대상자 교육
	일반인		시민대학 강좌 개설 후 교육 실시
교육과정 연계	호스피스 관련 기관	환자 & 가족	호스피스 관련 기관과 MOU 체결 후 환자 및 가족의 교육 연계
	관련 학회		웰다잉 연구 워크숍 실시
	의료기관		직무교육과 연계하여 웰다잉 교육 실시
	상담치유센터		자문과 컨설팅 및 연계
	사회복지기관		
교육교재 추가 개발	웰다잉 관련 민화책 개발		청소년 대상 웰다잉 관련 민화책 개발 및 출간
	웰다잉 교재 영문판 개발		<지혜로운 삶을 위한 웰다잉> 교재 영문판 개발
			청소년 대상의 죽음교육 활성화 및 웰다잉 인식 제고
			웰다잉 교육의 세계화 실현

1차년도 연구내용

‘죽음과 웰다잉’ 전국 규모 조사 및 웰다잉 지도 제작

세부 연구 주제	대상 및 기관	연구내용 및 개발 방법	기대 성과
국가단위 조사연구	일반인 세대 성별 지역 경제적 수준 가족 등	죽음 및 웰다잉 측정도구 개발	- 다양 측정도구 및 관련변인 측정도구 1종 - 국가 웰다잉 지도(인구별, 지역별, 삶의 변인 별) - 국가 웰다잉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전문가 직종의료사회 공무원 등 자문 의식	관련변인(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전문 조사기관 의	
		인구 성별 지역별 삶변인별 웰다잉현 분석	

‘죽음과 웰다잉’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개발

세부 연구 주제	대상 및 기관	연구내용 및 개발 방법	기대 성과
자 과정개발	일반인 과정	기본과정 개발	- 웰다잉 교육 및 양성과정의 전문화 및 체계화 - 웰다잉 교육의 전문성 강화 - 웰다잉 전문가 양성
	전문분야 대상 과정	전문과정 개발	
		강사과정 개발	

2차년도 연구내용

‘웰다잉’ 해외 비교연구를 위한 지원 시스템

연구의 세부주제	대상 및 기관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 및 성과
국외 연구 지원 국내 기관 연계 사업	KERI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세안 E-le min 지원사업 연계된 대학과 MOU	웰 및 웰다잉 교육의 로 화, 웰다잉 인식도와 필요성 제고 및 확대
	건양대 국제교육원	국제 교육원 관련 기관과 MOU체결 후 교육자료 제공	
	해외 대학	건양대학교 해외사업과 연계 교육자료 제공	
	보 병원	MOU 체결 후 보건의료상식 부분이 된 교육자료 제공	시 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웰다잉 필요성 제고
	다문화센터	다문화센터와 MOU체결 후 다문화가정의 웰다잉 교육 연계(리플 , 영상 배)	다문화가정의 웰다잉 인식도와 필요성 제고, 웰다잉 교육의 로 화
국외 연구 확대 방안	세안 E-le min 지원사업	세안 E-le min 지원사업 연계 대학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시 지역의 보건의료상식 및 웰 과 웰다잉 인식의 향상
	시 보 일본	보건의료상식 부분이 된 웰 및 웰다잉 영상 제공 후 확대	시 지역 웰 및 웰다잉 교육 로 화

2차년도 연구내용

웰다잉 해외 비교 연구

연구의 세부주제	대상 및 기관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 및 성과
국외 웰다잉 연구	시 국가 일본	· 죽음 문화 및 전통 연구 · 웰다잉 국가 및 사회 시스 연구 · 일본의 대학과 연구 연계 방안 련	· 선진국형 웰다잉 사회 및 정책 분석결과 · 전통문화형 웰다잉 분석 결과 · 국외 연구 워크 구축
	서유 국가 일 스	· 서유 죽음 문화 및 전통 연구 · 웰다잉 선진국가형 시스 및 복지 연구 · 대학 공 연구 및 연계 방안 련	

다양한 웰다잉 저역서 발간

연구의 세부주제	대상 및 기관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 및 성과
개발	웰다잉 실천 사 집 발간 및 배부	연구대상 웰다잉의 삶을 사는 개인 및 관련 단체 조사대상 전문가 자문에 의한 조사 지역 및 연구통계적 기준 선정 자료수집 사전 교 , 현 출 및 인터 결과분석 스 리 링 모델의 적용 및 작성	웰다잉 교육홍보의 내실을 기하는 기여
	웰다잉 만화책 영문버전 출간	전세계 청소년 대상 웰다잉 만화책 출간	전세계 청소년 대상의 죽음교육 활성화 및 웰다잉 인식 제고

01 연구성과

논문 실적 47건

지역서 실적 9권

학술 발표 30건

연구교차강의 21회

주관 포럼 1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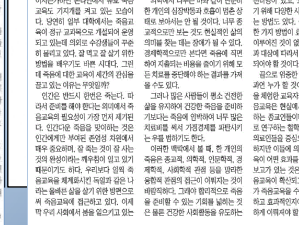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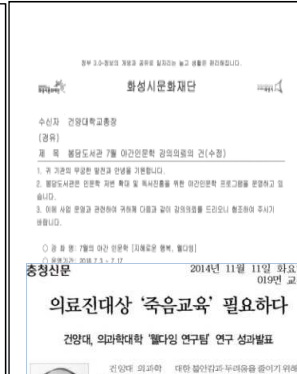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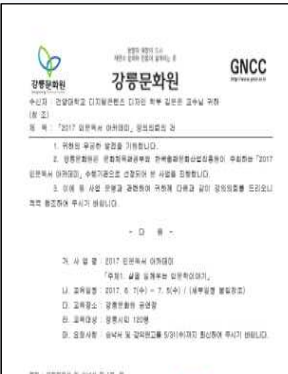
MOU 실적 22건

지식정보확산 35회

수상 실적 13건

언론 홍보 95회

융합연구참여 25회



02 사회저변 확대 성과

융합연구총괄센터 연계

홈페이지, SNS 기반 조성



현재(2021.10월)기준
조회수 3,308회

현재(2021.10월)기준
조회수 6,183회

<http://gccr.kku.ac.kr/>

<http://www.konyangwelldying.or.kr/>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교육연계형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연구거점 육성 및 우수 연구성과 창출
- 국가·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집단 및 차세대 연구자 육성
-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교육과 연구 연계 등 인문사회과학 진흥전략 모색

☐ 사업 세부내용

- 교육연계형
 - 대학인문사회교육, 기초교양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II. 연구 대상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총 6년(3+3년) / (연구개시) '20. 9. 1.

☐ (지원대상)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 (신규과제) 20개 내외
- (계속과제) 125개(인문사회연구소 74개/대학중점 37개/정책중점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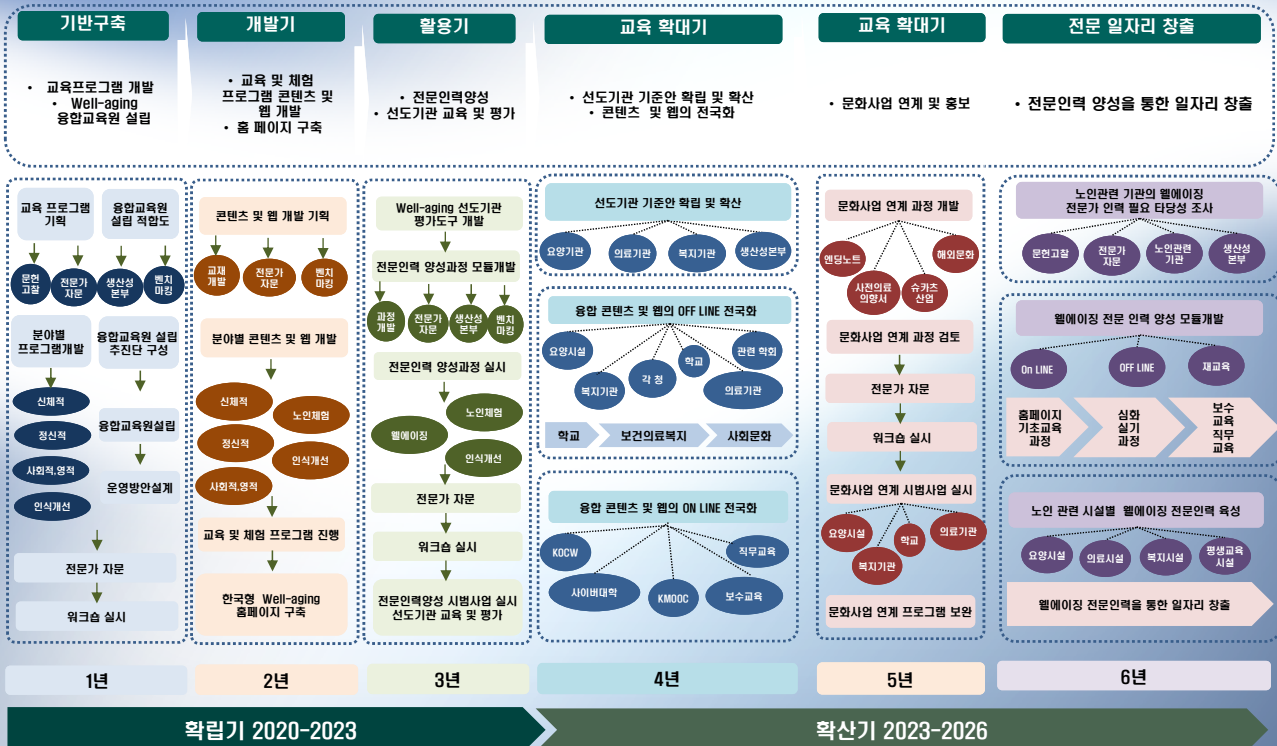
☐ (지원규모) 200백만원 이내/연간(간접비 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I. 한국형 웰에이징 모델 개발 및 사회 확산을 위한 융합 연구

한국형 웰에이징(Well-aging) 모델 개발 및 사회확산을 위한 융합 연구

한국생산성본부와 연계한 웰에이징(Well-aging) 사회문화 융합 교육 거점센터 구축



건양대 웰다잉 융합 연구소 웰다잉교육 동영상

<https://youtu.be/O7fHY7FhvKo>

『웰다잉 융합 연구소와 웰에이징』 토론자료

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구진희

- 최근 의학 기술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한국 노인의 평균수명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30년에 24.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7년 노인의 평균수명은 82.7세, 2017년 기준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2010년에 비해 약 72.2%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유엔이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World Population Ageing 2019)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50년 기간 동안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국가 중 9개 국가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관찰되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23.0% point)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질적으로 높은 삶을 위한 웰빙(well-being)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웰빙,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웰에이징(well ageing)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의 비전과 목표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은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살아가는 것’ 혹은 ‘잘 늙어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30-40대는 물론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중년기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수요 대비와 국민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웰에이징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웰다잉 융합 연구소는 웰에이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양대학교에서 그동안 축적된 웰다잉 융합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웰에이징 즉,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교육의 전문화 및 웰에이징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웰다잉 융합 연구소에서는 웰다잉 및 웰에이징의 교육 전문화를 위해 학제간 융합 연구와 대학의 교과/비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인문학: 〈레 미제라블〉과 프랑스 근대사

건양대학교 박아르마

The image is a composite graphic for a lecture. It features a historical illustration of a French Revolution scene in the background. Overlaid on this is a timeline with the following dates: 1789, 1792 (highlighted in red), 1804, 1815~1830, 1830, and 1848. In the top left corner, there is text: "Les Misérables" and "프랑스 근대사" (French Modern History) next to a French flag icon, followed by "19세기는 혁명의 역사" (The 19th century is the history of revolution). In the top right corner, there is a logo for "대학혁신지원사업"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and "교육혁신원" (Innovation Center for Education). In the bottom left corner, there is text: "제1공화정 탄생(9월 21일)" (Birth of the First Republic (September 21st)). In the foreground, a man in a suit and glasses is speaking, holding a small object in his hand.

Les Misérables
프랑스 근대사 19세기는 혁명의 역사

1789 1792 1804 1815~1830 1830 1848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원

제1공화정 탄생(9월 21일)

19세기는 혁명의 역사(1)

-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1833년까지의 민중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음
- 혁명의 역사:
 -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루이 16세 치하의 민중들은 질병과 물가 상승으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 1792년 9월 21일 제1 공화정 탄생: 국민공회는 왕정을 폐기하고 제1공화국을 선포(루이 16세 처형)

19세기는 혁명의 역사(2)

- 1804년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 자신이 혁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선언. 1815년 6월 백일천하로 몰락
- 1815~1830년, 루이 18세와 샤를 10세의 왕정복고 기간: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고 억압적인 통치와 경제정책 실패로 몰락
- 1830년 7월 27일의 파리 봉기(7월 혁명): '영광의 3일'로 왕이 퇴위하고 루이 필리프가 왕에 오름

19세기는 혁명의 역사(3)

- 1848년 2월 혁명: 경제불황과 노동운동, 자유주의 운동, 선거권 확대 요구로 루이 필리프는 프랑스의 마지막 왕으로 퇴위
- 1848년 12월 제2공화정: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 구데타로 황제가 되어 1852년 12월 제2제정 선포

<레 미제라블>과 혁명(1)

- 6월 봉기: 1832년에 일어난 파리 봉기
- 1832년 6월 5일~ 6월6일 파리에서 군주제 폐지를 기치로 일어난 항쟁
-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에 불만을 품은 공화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을 기해 봉기를 일으킴
- 흉작, 물가상승, 식량부족 등으로 하층민 불만 고조. 나폴레옹주의자, 정통 왕당파도 헌정권에 불만

<레 미제라블>과 혁명(2)

- 6월 봉기의 진행과 <레 미제라블>
- 공화주의자들은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어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에서 붉은 기를 들고 거사를 일으킴. 노동자들과 외국인들도 참여하여 시위에 가담
- 정부군의 진압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저항했으나 93명의 희생자를 내고 진압당함
- 빅토르 위고는 파리에서 글을 쓰던 중 6월 봉기와 바리케이드를 목격. 공화주의자이자 혁명에 우호적이었던 위고는 <레 미제라블>을 통해 잊혀진 혁명인 6월 봉기를 되살림

<레 미제라블>과 혁명(3)

- <레 미제라블> 읽기: '1832년 6월 5일', 폭동과 봉기의 차이
- "폭동이 있고 봉기라는 것이 있다. 둘 다 분노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부당하고 다른 하나는 정당하다. 정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때로는 소수가 부당하게 다수를 착취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다수가 일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불가피하게 무기를 들기도 한다."
- "주권의 문제에서 일부에 대해 전체가 벌이는 전쟁은 봉기이고 전체에 대해 일부가 벌이는 전쟁은 폭동이 된다."

영화 속 뮤지컬 감상(1)

- <민중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가?>

Do You Hear the People Sing?

- 노래: 대학생들과 앙졸라
- 곡의 특징: 공화주의자들의 영웅 라마르크 장군의 죽음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그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민중봉기를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결의를 다지며 부르는 노래. 결의와 다짐, 희생에 대한 의지가 넘치는 대표적인 합창곡

깃발로 본 프랑스 혁명사

1. 프랑스 혁명과 삼색기: 바스티유 함락 이후, 부르봉 왕가의 흰색, 파리의 붉은색, 단결의 상징 파란색을 결합시켜 공화국의 상징으로 만들어짐
2. 왕정복고 시기의 백색기: 부르봉 파는 왕가의 상징인 백색기를 국기로 채택/루이 필리프는 삼색기와 '라 마르세예즈'를 복권
3. 흑기: 1831년 리옹의 견직공들은 봉기를 일으킴. 흑기는 무정부주의자의 상징으로 등장
4. 붉은 기: 1830, 1840년대 바리케이트에서 등장, 노동운동의 상징이 됨. <레 미제라블>의 6월 봉기에서도 등장

프랑스 혁명과 바리케이드(1)

- 바리케이드란?: 프랑스 민중들이 도시의 골목 사이에 여러 물건들을 쌓아 만든 저항의 보루
- 1830년의 바리케이드: 샤를 10세에 저항하여 파리 시민들이 쌓은 보루, 7월 27일 '영광의 3일'로 왕을 몰아냄
- 1832년 6월의 바리케이드: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에 봉기, 93명의 희생자를 내고 실패로 끝남

프랑스 혁명과 바리케이드(2)

- 1848년 2월의 바리케이드: 대학생, 노동자, 상인들이 500개의 바리케이드를 쌓고 저항. 루이 필리프가 물러나고 임시정부가 구성됨
- 1848년 6월의 바리케이드: 2월 혁명의 성과를 얻지 못한 노동자, 실업자, 소상공인들이 싸웠으나 4000명의 희생자를 내고 무너짐

프랑스 혁명과 바리케이드(3)

-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의 바리케이드
- “생 탕투안의 바리케이드는 거대했는데, 삼 층 높이에 폭이 700피트였다. 세 개의 거리를 한 모퉁이에서 다른 모퉁이까지 막고 있었다... 바리케이드는 7월 14일을 겪어 본 그 무서운 장소의 안쪽에 거대한 제방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중심이 되는 바리케이드의 뒤에 길 깊숙이 열아홉 개의 바리케이드가 첩첩이 겹쳐 있었다... 이 바리케이드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부순 칠층 집 세 채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분노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 <레 미제라블> 5권 1, '시가전'

소설 <레 미제라블>에 대해

-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 정치인
-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유일한 국민 작가
-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1831)와 <레 미제라블>(1862)의 작가
- 실제 삶과 작품을 통한 민중에 대한 사랑이 모순되지 않은 작가

빅토르 위고의 일생

■ 작가의 출생과 활동

- 1802년 프랑스 동부 지방 브장송에서 출생
- 1851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하여 벨기에로 망명, 이후 영국령 저지 섬, 1855년 건지 섬으로 건너 감
- 1870년 제2제정 종식으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파리 귀환
- 1885년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팡테옹에 안치

<레 미제라블>의 작품세계

■ 소설적 특징

- 사실주의 소설: 19세기 초 프랑스와 파리의 하층민의 삶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묘사
- 역사적 소설:
 - 워털루 전투, 나폴레옹의 실각과 공화주의자들의 등장
 - 1832년 파리에서 일어난 6월 봉기, 왕당파에 맞선 공화주의자들의 항쟁으로 소설은 절정에 이름

<레 미제라블>의 등장인물

■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립

- 등장인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반된 가치의 충돌과 갈등, 대립
- 장발장: 선과 악, 이기심과 희생, 사육과 인간애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투쟁을 보여줌
- 자베르 경감: 법률의 존중, 원칙과 신념·관용과 용서 사이에서의 투쟁. 자베르는 상반된 가치의 선택과 균형, 관용 대신 죽음을 선택

<레 미제라블>의 주제

■ 사랑의 서사시와 사랑의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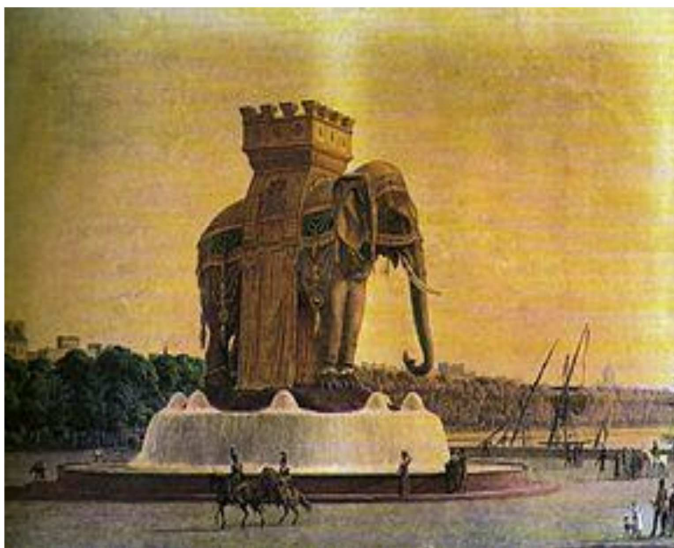
- 작가 빅토르 위고: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에 대한 사랑
- 신부: 장발장을 용서하고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기독교적 사랑
- 팡틴: 어린 딸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 에포닌: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보상받지 못한 사랑
- 장발장: 코제트와 마리우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
- 코제트와 마리우스: 행복한 결말을 가져온 상호적인 사랑

영화 속 뮤지컬 감상(2)

- '다시 하루가 더 지나면' One Day More
 - 노래: 장발장과 자베르, 코제트와 마리우스, 에포닌, 앙줄라와 대학생들, 테나르디에 부부 등
 - 곡의 특징: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결전의 날을 기다리며 모든 출연진이 부르는 결의에 찬 노래. 저마다 다른 꿈과 바람을 노래함. 뮤지컬의 대표곡

영화 <레 미제라블>의 배경(1)

- 바스티유 광장의 코끼리 상



영화 <레 미제라블>의 배경(1)

- 바스티유 광장의 코끼리 상
 - 유래: 1812년 나폴레옹의 지시로 바스티유 광장에 물을 뿜는 거대한 코끼리 상의 건설이 계획됨
 - 나폴레옹의 실각으로 계획이 중단됨
 - 청동으로 만들려 했으나 1814년 석고로 제작된 이후 파괴되어 흉물로 남아있다 철거됨
 -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서 소년 가브로슈의 놀이터이자 거처로 묘사되어 유명해짐

영화 <레 미제라블>의 배경(1)

- 바스티유 광장의 코끼리 상
 - “지금은 파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20년 전만 해도 바스티유 광장 남동쪽 모퉁이에는 기이한 기념물이 하나 서 있었다. 13미터 정도 되는 코끼리 상이었는데, 골조를 세우고 벽돌을 쌓아 만들었고 등 위에는 흡사 집처럼 생긴 탑이 있었다. 서툰 도장공이 초록색으로 코끼리를 칠했는데 이제는 비바람을 맞아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광장 외곽의 적막한 모퉁이에서 이 거대한 동상의 넓은 이마와 코와 어금니, 거대한 엉덩이와 기둥 같은 네 다리는 밤하늘 아래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드리우곤 했다.”

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 ‘꼬마 가브로슈’

영화 <레 미제라블>의 배경(2)

-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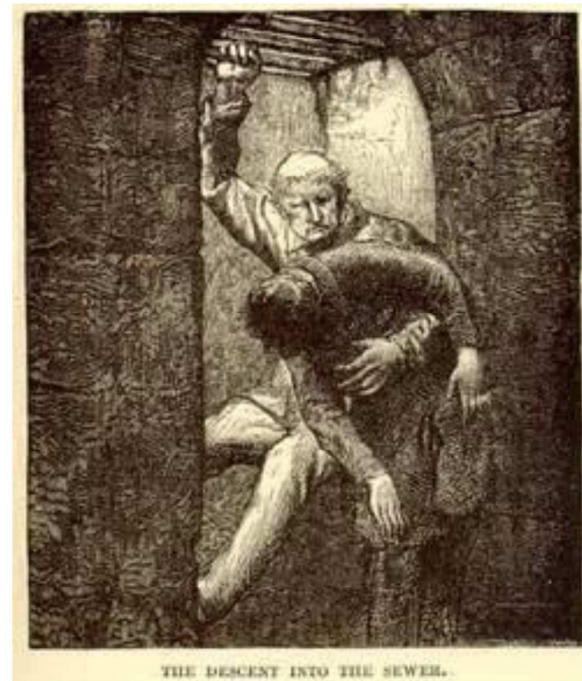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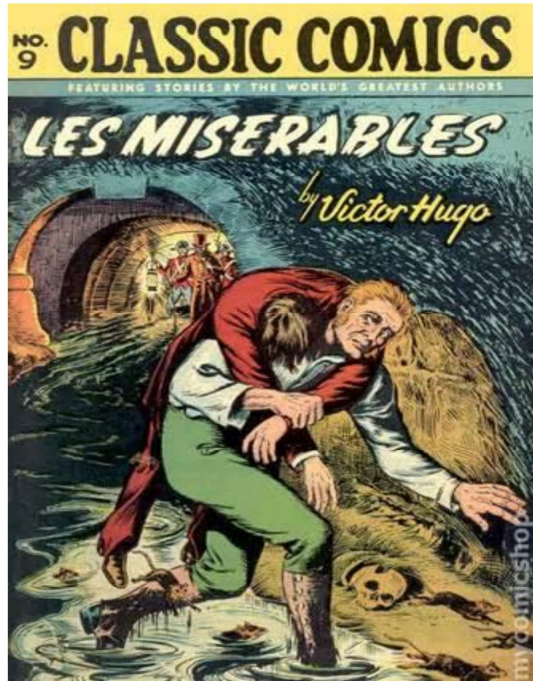


영화 <레 미제라블>의 배경(2)

-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1830년 작, 영광의 3일 동안 바리케이드를 지킨 노동자, 부르주아를 그림
- 1830년 7월 혁명: 샤를 10세의 퇴위와 루이 필리프의 왕위 등극
- 루이 필리프이 구입 후 루브르 박물관 소장
-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집필에 영감

영화 <레 미제라블>의 배경(3)

- 장발장과 마리우스: <파리의 하수구>



영화 <레 미제라블>의 배경(3)

- 파리의 하수구
- 방문 위치: 프랑스 파리, 알마 다리 남쪽 끝
- 근대식 하수도: 인구 증가로 전염병이 번지자 오물과 물을 흘려 보내는 하수관 설치
- 총 연장 2천4백 킬로미터
- 지상의 모든 거리 이름이 지하에도 이중으로 표기되어 있음
- <레 미제라블>을 비롯한 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오늘날 관광 상품화 됨

결론

-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과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
- <레 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로 영화, 뮤지컬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영화와 뮤지컬을 통해 19세기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와 서민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음
- 이 작품이 위대한 것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임

“노년의 인문학: 『레 미제라블』과 프랑스 근대사”에 대한 토론문

정해수(목원대)

박 아르마 교수님의 발표문 “노년의 인문학 - <레 미제라블>과 프랑스 근대사”를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PPT 파일로 작성된 발표문을 처음 읽고 토론에 임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난감했습니다. 일반적인 글의 형식이 아니어서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랑스문학을 전공한 토론자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어서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발표를 통해 우선 프랑스 근대사와 소설에서 역사적·소설적 사건들의 밀접한 유사성을 주목하셨습니다. 작품 <레 미제라블>과 프랑스 근대사를 병치하여 작품의 사실주의적 특징을 강조하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레 미제라블>이 19세기 전반 혁명으로 점철된 프랑스 파리를 재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결국 실패로 귀결되며 제1 제정을 거쳐 부르봉 왕가가 재등장하여 실정과 경제적 파탄을 거듭한 끝에 일반 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하층민들이 지속적인 기근과 식량부족으로 미래가 없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다 거리로 내몰리는 비참한 인간의 조건을 빅토르 위고는 팡틴을 비롯한 등장인물을 통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박 아르마 교수님은 이런 점에서 <레 미제라블>은 1832년 6월 혁명까지 역사 및 문화적 흐름뿐만 아니라 기층을 이루고 있는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재현했다고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의 상반된 가치관의 충돌과 대립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작품 전반에 산재되어 숨죽이고 있는 사랑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도 이 발표에서 교수님이 주목하는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작품을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하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파악하시고 결국 <레 미제라블>이 “사랑의 서사시”라고 주장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흥미롭게 읽었고 즐거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을 읽다가 한가지 질문과, 아쉬운 점 그리고 제안할 내용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목에서 노년의 인문학 관점에서 <레 미제라블>을 분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년의 인문학”과 발표문 내용 사이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발표문에 담고 있는 내용이 다소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어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많은 내용을 열거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 고리를 갖는 내용만 다루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제안할 내용은 전형적인 낭만주의 계열의 작품에서 낭만주의 내용이 빠져있으니 다음에 논문을 작성하실 때 이 점을 보충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 미제라블>에는 강한 낭만주의의 요소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적 소유에 의해서 자연적인 자유와 평등이 깨졌다고 보고 자연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루소의 사상이 아니더라도 작품 전체에 걸쳐 등장인물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인간 조건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불평등 속에서 괴로워하

고 있습니다. 루소의 주장처럼 위고도 사회계약에 의해 달성되는 자유와 평등의 상태를 복원할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우스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 모두 혁명에 동참하여 혁명을 통해 자연상태의 인간의 본모습을 회복하고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는 루소의 주장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나 ‘혁명적 낭만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위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자의 공부법을 활용한 교양 교육 연구

- 공자의 대화법을 중심으로 -

서원혁(충남대학교)

1. 서론

본 논문은 공자의 공부법을 활용해 교양 교육에 필요한 수업 방법을 탐구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대학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기능(다양한 분야의 창의 인재 양성), 연구기능(새로운 학문이나 지식을 탐구), 그리고 봉사기능(다양한 공적 서비스)을 수행해 왔다. 이중 핵심적인 교육기능에 있어서 그 교육 목표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합한 교양과 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탐구활동을 통해 인재를 양성에 있다. 물론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그 분야의 연구능력만 있으면 교수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 그러나 대학 교수에게는 연구능력 못지않게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교수(teaching)능력도 중요하다. 공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학문을 전달했다. 그중에서도 대화법을 중심으로 현재 대학 교육에서 활용할 만한 교양 교육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자가 제시하는 유가의 기본 사상을 살펴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공자의 노력과 그 대화법을 탐구하여 교양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한다.

2. 공자의 기본 사상

(1) 공자의 교육 사상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상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그 형태가 대중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물질만능에 따른 향락주의 형태가 널리 퍼져있고 기계화화로 인한 인간소외는 그 한계를 모르고 진행된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물질만능 세대는 인간의 정신을 쇠퇴시키고 도덕성의 타락은 물론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여 인간에 대한 기존 존중 보다는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시대는 인간에 대한 인륜으로써의 윤리·도덕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시대에 올바른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혼돈에 빠져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자의 교육 사상은 인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자는 당시 암울했던 사회에서 자기의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사상을 전개했다. 이는 모든 개인의 수양에 기초를 두면서 이것을 통하여 윤리적인 사회질서를 이룩하는데 있었다. 이른바 修己治人의 學이었다. 개인의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고 타인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확립하여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 보려는 공자의 의도는 시대에 따라 교육의 사조는 변할지언정 그 심저에 흐르는 본질은 크게 변함이 없이 현대에도 그대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공자의 사상은 『논어(論語)』외에도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의 사서(四書)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孔子의 학문 활동이 가장 잘 나타나 있고, 공자의 사상이 가장 잘 보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논어(論語)』라 할 수 있다. 『논어(論語)』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대화 형식들 속에서 공자만의 대화법을 찾고 현대 교양 교육의 과정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공자의 교육사상의 핵심은 仁과 그 의미 및 仁의 교육적 가치에 있다. 둘째, 공자의 교육목적은 인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수양에서 시작해서 이를 사회로의 확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자의 교육사상은 즉 공자의 ‘道’인 ‘인간의 길’, ‘인간다움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孔子의 道에 대해 사상적 측면뿐 아니라 교양 교육 방법으로써 대화 방법이 바람직한 논의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유용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2) 공자와 『논어』

공자는 춘추 전국이라는 역사적인 일대의 혼란기에 일생을 살았다. 역사적으로 주(周)나라가 제후들에게 실권을 빼앗긴 채 수도를 호경(鎬京, 서주(西周)시대)에서 낙읍(洛邑)으로 옮긴 동주(東周)시대부터 진(晉)나라가 위(魏), 한(韓), 조(趙)의 세 나라로 분리되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춘추시대라 하고 그 뒤부터 진시황이 육국(六國)을 통일할 때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전국시대라 한다. 따라서 공자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대체로 춘추시대 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주 왕실이 유명무실해지고 봉건제도 등 예제가 무너지가는 시대였다.

맹자는 그 당시 시대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의 도가 쇠퇴해져서 사악한 말과 난폭한 행위가 난무하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생겨났다. 孔子께서 이러한 난세를 두려워하여 『춘추(春秋)』를 지으셨다. 공자의 탄생에 대해 한나라의 사마천은 『사기』의「공자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자(孔子, BC 551~479)는 노나라 창평향(昌平鄉) 추읍(陬邑) 탄생하였다. 그의 선조는 송(宋)나라 사람 공방숙(孔防叔)인데 방숙은 백하(伯夏)를 낳았고, 백하는 숙량홍(叔梁紇)을 낳았다. 숙량홍이 안씨(顏氏)의 따님과 야합(野合)해 공자를 낳았는데, 니구산(尼丘山)에 기도하고 공자를 얻었으니, 노양공(魯襄公) 22년(B.C.522, 혹은 551)이었다. 태어날 때 머리위가 오목하므로 이름을 구(丘)라 하고, 자는 중니(仲尼)며, 성은 공씨이다.¹⁾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動的)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靜的)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낙천적이고 어진 사람은 장수(長壽)한다.”²⁾

2-1) 공자의 학문 체계

- ◆ 吾十有五而志于學(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學問)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확고하게 섰고, 마흔 살에 사물의 이치(事理)에 의혹(疑惑) 갖지 않게 되고, 쉰 살에 천명(天命)을 알았고, 예순 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일흔 살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法度)를 넘지 않았다.”³⁾

1) 『史記』 권47 「孔子世家」, “孔子生魯昌平鄉陬邑, 其先宋人也 曰孔防叔. 防叔生伯夏, 伯夏生叔梁紇. 紇與顏氏女野合而生孔子.”

2) 『論語』 「雍也篇」, “子曰 知(智)者 樂水 仁者 樂山 知者는 動 仁者 靜 知者 樂 仁者 壽.”

3) 『論語』 「爲政」,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天的 실질 내용이 인(仁)임은, 공자의 천인지천(踐仁知天:인을 실천하는 가운데 天을 깨닫는다)으로부터 확증된다. “열다섯 살 때 학문에 뜻을 세워, 서른 살 때는 신념이 확고해졌고, 마흔 살 때는 사리 판단에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고, 쉰 살 때는 하늘의 명(命)을 깨쳤다”는 공자의 말은 천명(天命)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깨쳤다는 말이다. 여기서 ‘지(知)’는 지식론에서의 인지가 아니라, 하나의 증험이요 깨침이다. 공자는 자신의 인체(仁體 ; 즉 仁性)를 한껏 발휘하고 고양시킴으로써 초월적 지고무상의 존재를 확연하게 드러내었다.

2-2) 공자의 천관-하늘에 대한 이해

◆‘오십이지지천명(五十而知天命)’공자에 있어서 천(天)이란 무엇인가?

세계의 운동과 변화의 배후에는 그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그것을 공자는 천(天)이라고 부른다. 공자의 천(天)은 은주(殷周)시대의 상제천(上帝天) 관념을 일면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신비하고 불가해한 종교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대단히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공자가 56세 때 진(陳)으로 가는 도중에 광(匡) 땅에서 노(魯)나라 장군 양호(陽虎)로 오해를 사 봉변을 당한 일이 있다. 이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文:예악제도)은 내게 있지 않은가, 천(天)이 문(文)을 없애려했다면 내가 이 문(文)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천이 이 문(文)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으니 광(匡)땅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⁴⁾

여기서는 중국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그의 자부심이 天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려준다. 天에 대한 신앙은『詩經』과『書經』에 이미 있었기에 공자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고유의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작용이 가장 뚜렷하나, 은총을 베풀고 벌을 주는 역할도 지니고 있었다. 하늘은 덕(德)이 많은 사람에게 명(命)을 내리어 그를 천자(天子)로 삼고 그로 하여금 온 천하를 다스리도록 은총을 베풀지만, 천자(天子)가 덕(德)을 잃고 어지러운 정치를 하면 은총을 거두고 명(命)은 다른 덕(德) 많은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이것은 공자의 “하늘이 내게 덕(德)을 부여해 주셨다”(天生德於予)는 자부심이나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하늘의 은총이 끊길거라고 한 말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공자의 하늘에 대한 신앙이『詩經』이나『書經』의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다만 공자에게 이르러 하늘의 뜻 또는 하늘의 명(命)은 더욱 개인의 내면적인 여건들과 결합되어 있어, 여러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관계없이 더욱 여러 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자의 천의 믿음은 역사적 현실이 우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의 섭리에 의해 주재되고 있다는 믿음과 연결되고, 이러한 믿음은 역사 현실에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보다 이성적이며 도덕적으로 성숙되어 진정한 질서와 평화가 있는 인간적 사회의 실현을 말한다. 이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이상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자공이 말하였다. 어쩌서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4) 『論語』「憲問」, “子畏於匡, 曰 文王既沒 文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고 하십니까?”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배워서 위로 통달하노니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늘이로다!”⁵⁾

『논어』에 나타나는 명(命)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불행히도 명(命)이 짧아 죽었습니다.⁶⁾ 에서 短命이란 안회가 서른두살에 죽었음을 가리킨다. ② 명(命)이로구나.⁷⁾ 명(命)은 삶을 지탱시켜 주는 원동력이므로 천명(天命)이라 할 수 있다. 천명(天命)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봄·여름·가을·겨울이 순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세세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천명(天命)도 이와 같은 것이다. ③ 백리의 명(命)을 부탁할 만하며⁸⁾에서 寄百里之命에서 寄는 위임, 百里는 제후의 나라, 命은 한 나라의 흥망(興亡)을 나타낸다. 결국 이 말은 제후 나라의 운명을 위임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공자께서는 이(利)와 명(命)과 인(仁)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다.⁹⁾ 명(命)과 함께 이(利)를 말하는 것은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도 천명(天命)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利)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것이고, 인(仁)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인도(仁道)를 어기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⑤ 반드시 보고 하시기를 에서 復命은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손님이 돌아갔을 때 “손님이 뒤돌아보지 않고 잘 갔습니다”라고 보고하며 임금의 염려하는 마음을 풀어주는 말로 사용되었다.¹⁰⁾

예(禮)의 본질을 터득하여 도(道), 덕(德), 인(仁), 성(性), 천명(天命)등을 회복하게 되면, 남과 만물과 하나가 되어 마침내 하늘과도 일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이 없어지게 되어 전체로서의 ‘나’만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공자는 천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군자는 세 가지 두려운 것이 있으니 천명(天命)을 두려워하며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올바른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자신의 주체적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근거인 천에게 경외해야 함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중국 은(殷)대에서 천을 우주의 주재자로 보고 외천·경천하는 사상적 전통인 제(帝)의 관념을 계승한 것이다.

2-3) 공자의 인간학- 인간에 대한 자각

공자가 말한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에 있어 도덕, 윤리적 인간상은 어떠한가? 인간관에 대한 공자의 태도는 우주의 일부분이 아니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천지의 생에서 인(人)이 귀하다”라든지, “만물의 이치가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 함은 인간이 천지만물의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긍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 역시 모두 공자의 인간관에서 연유된 것이다. 공자는 “천생덕어여(天生德於予):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주셨으니”라고 하여 인간이 구비한 모든 덕(德)이 天으로 부터 근원이 됨을 인정하면서도, 귀신을 섬기는 법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능히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능히 귀신을 섬기겠는가”라고 하였다. 또한 공자는 죽음에 대한

5) 『論語』「憲問」, “子曰莫我智也夫!子貢曰何爲其莫知子也?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6) 『論語』「雍也」“不幸短命死矣”.

7) 『論語』「雍也」“命矣夫”.

8) 『論語』「泰伯」“可以寄百里之命”.

9) 『論語』「子罕」“子罕言利與命與仁”

10) 『論語』「鄉黨」“必復命曰”.

물음에서 “생(生)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함으로써 인간과 생(生)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天을 부정하거나 인간 우위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人道)를 밝힘으로써 천도(天道)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天의 덕(德)이 인간 내면에 존재하므로 天이 소중한 만큼 인간 역시 존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은 공자의 천관에서 볼 수 있었듯이 天으로부터 타고나면서 부터 받은 덕성을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공자의 인간관은 완성형이 아닌 개방된 가능존재의 인간형으로서, 이상적 인간상을 이루기 위해 자기수련이 부단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 안에 내재한 천성을 자각하고 천성인 덕(德)을 닦아 나갈 때 비로소 천도(天道)를 체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덕을 닦지 않고, 학문을 익히지 않고, 의로움을 듣고도 옮아가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거리이다.¹¹⁾

진리는 천명(天命)을 실천하는 것이다. 천명(天命)은 덕(德)을 닦음으로 써 가능하다. 덕(德)을 닦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학문적 방법과 실천적 방법이 바로 그것인데 또 다시 실천적 방법에는 의(義)로움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방법과 불의(不義)를 고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 진정으로 天과의 인간의 합일(合一)을 공자의 사상 안에서 찾는다면 그의 이상적인 염원이었던 군자, 성인이 되어야만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의 실천은 수기(修己), 안인(安人), 애인(愛人)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적인 너와 나 사이의 인간으로서 기본원리를 인(仁)으로 파악하였다. 인이란 너와 나의 인간 공존 관계에 착안하여, 서로 너와 나 사이(人의 間)가 사랑하는 관계(愛人)라는 사회적인 인간의 철학을 강조하였다. 예는 귀신에게 제사물을 바치는 상형글자이고, 악은 귀신에게 음악을 올리는 상형글자이다. 예악은 그 기원을 거슬러 살펴보면 모두 귀신에게 제사하는 도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즉 신례, 신악이라고 하겠다. 공자는 예를 천신 중심의 신학으로부터 인간적인 반성과 이해에 기초한 새로운 예문화를 발전시켰다. 아울러 극기복례(克己復禮)가 인이 된다고 하였으니, 사욕을 극복하여 참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인의 실천이라고 분명하게 도덕, 윤리적 인간학을 제기하였다.

2-4) 공자의 정치·경제 사상 - 대동사회(大同私會)를 향한 도덕정치

공자가 말씀하셨다.“법령으로 지도하고 형벌로 통제한다면 백성들이 법망을 벗어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의를 통제한다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바르게 된다”¹²⁾

공자의 정치사상은 덕치(德治) 혹은 인정(仁政)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벌의 정치를 비판하고, 덕과 예의 정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곧 인정(仁政)이라 함은 “하루 사욕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한다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하고 인은 애인(愛人)이라 하였다. 덕치란 애인을 실현하는 정치이다.

공자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 하여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1) 『論語』, 「述而」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

12) 『論語』, 「爲政」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政)을 묻자,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고(君君), 신하는 신하답고(臣臣), 부모는 부모답고(父父), 자식은 자식다와야 한다(子子).”¹³⁾

대동사회(大同私會:크게 더불어 하나가 되는 사회)를 향한 도덕정치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공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데 이러한 사회가 되면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권모술수나 편법이 사라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태평천하가 실현된다.

유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며, 인간의 삶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사상이다. 공자의 ‘도(道)’는 ‘인간의 길’, ‘인간다움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공자의 도에 대하여 단순히 사상적 측면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개인의 도 구현과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논하려 한다. 즉, 『논어』의 도덕(道德) · 인륜(人倫) · 위정(爲政) · 천명(天命) 등에 함축된 道 사상과 호학(好學) · 충서(忠恕) · 예악(禮樂) · 경신(敬信) 등을 도 구현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하여, 道の 구현을 통한 이상세계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공자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압축한 《논어》의 맨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은 ‘삼부지(三不知)’로 끝맺고 있다. “천명(天命)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禮)를 모르면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없으며, 말(言)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다.”¹⁴⁾

3. 공자의 대화법을 통한 교양 교육

『논어』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논어’라는 책의 제목이 ‘토론하고 이야기 한다’라는 의미인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공자가 제자들이나 위정자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모두 대화를 통해서라는 사실이다.

공자는 문답과 논의를 중시했고, 대화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권위적이며 준엄한 스승이 아닌 제자의 어떤 질문에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모습이야말로 공자가 가르치는 기본 자세였다. 대화에 있어서의 태도로 진실하고 솔직한 태도의 필요를 제기했다. 제자들과 대화함에 있어서 공자는 자신을 꾸미지 않았으며 소탈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노출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지만 모른 것을 아는 척 하거나 침묵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묻지 않는다면 그는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공자의 태도는 진실과 양심에 따르자는 것에 있지 무엇인가를 숨기고 허식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 공자는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의 반응을 충분히 살피면서 그에 걸맞게 응하는 소통방식을 취했다. 자기만이 절대적이라는 태도는 공자의 소통방식이 아니다. 남의 입장을 긍정하는 관용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은 절대유일의 진리를 주장하는 하지 않으므로 종교적 도그마가 될 수 없었으며 관용적이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사람을 잃는다. 그러나 누구하고나 소통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소통과 대화를 강요하면 그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실언이 된다는 것이다.

공자는 또한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로의 질문 가운데 형이상학적인 귀신이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침묵했다. 대화하기를 좋아했지만 듣는 것을 더 좋아했고,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펼치지 않았다. 말하자면 경청과

13) 『論語』,「顔淵」 “君君 臣臣 父父 子子 ”

14) 『論語』,「堯曰」 “孔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침묵으로 소통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공자는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라고 『논어』에서 가르치고 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 오직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말하려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공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 전반을 살펴보면 공자는 투박하지만 자기가 한 말과 글에 대해 항상 경계했고, 겉과 속이 잘 조화된 사람을 군자로 인정했다. 공자는 “바탕과 겉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야 군자답다”¹⁵⁾라고 말했다. 내면의 깊이만큼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말 잘하는 방법의 핵심을 알 수 있다. 바로 나의 내면에 지혜와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가꾸고, 그 내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혜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말에 진실함을 담아야 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공자는 교언영색(巧言令色), 즉 번지르르 한 말과 꾸미는 얼굴빛을 한 사람은 ‘인(仁)’이 드물다고 했다. 말과 행동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결국 공자가 추구했던 ‘인’을 갖춘 군자는 그 사람됨과 말이 모두 진실해야 하는 것이다.

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¹⁶⁾

학습자 스스로 의문을 품거나 문제의식을 갖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자는 제자가 그래야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면 차츰 더 깊이 들어갔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울 때) 분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 애태우지 않으면 촉발하지 않는다. 한 귀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다른) 세 귀퉁이로써 반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는다.¹⁷⁾

아래의 문장은 역부족(力不足)이라는 말의 출전이 된 유명한 대화이다.

염구가 말했다. 저는 선생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역부족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역부족인 사람은 중간에 그만 둔다. 너는 지금 미리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¹⁸⁾

1단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2단계는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기→ 3단계는 상대방이 가장 어려워하는 감정을 분별하기→ 마지막 4단계는 적절하게 반응하기 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자의 설득력의 핵심은 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에 있다. 공자는 대화를 통해 각각의 인물과 그 어려움에 대해 접근법을 달리하면서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의 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論語』, 「雍也」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16) 『論語』, 「衛靈公」 “子曰 不曰 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17) 『論語』, 「述而」 “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

18) 『論語』, 「雍也」 “冉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畫.”

3-1)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공자의 대화법과 비교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문제가 제기된다.(예컨대 덕목, 정의, 진리,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흥분하면서 열정을 보였다.

2.상대방의 정의에서 ‘조그만 결함’을 찾아내고는 서서히 그것을 풀어가면서, 마침내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밖에 없도록 만든다.

3.무지를 분명하게 자각한 두 사람이 앞으로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대화는 거의 대부분 결론 없이 끝난다. 또한 그래야만 한다.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진리를 말해 줄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4. 나가며

우리가 『논어』를 읽어나가면 공자의 공부법을 쉽게 알 수 있다. 누군가 묻고 누군가 답한다. 즉 공자 혹은 제자나 제후 등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묻게 된다. 그러면 공자가 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자가 가르침을 주고자 묻고 제자나 제후들이 답하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그가 꿈꾸는 仁의 실천을 통한 ‘인간중심 사회’ 즉 대동세계를 이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대화법을 활용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누구든지 교화시키고 행동하게 만든다.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교양교육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동서양을 떠나 매우 유용한 교육방법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활용해 진리를 획득하고자 했다. 그의 대화법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리를 찾고자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모든 사람과 대화를 지속해 나간다.

이처럼 대화를 통한 교육 방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교양 교육에서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에 맞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지 여부에 대한 교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단위 시간별 학습 과정이 설정되어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이 잘 이뤄져야만 보다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양교육은 대화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개발과 시수에 맞는 적절한 주제 선택과 대화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 교육을 위한 준비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공자는 자신의 반성에서 시작해 인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화합을 이뤄내고자 다양한 대화를 진행했다. 교양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 교과목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나 융합에도 유용하게 활동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論語』

김춘미, 『음악학의 시원』, 음악춘추사, 1995,

카시러, 에른스트, 『괴테와 플라톤』, 추정희 옮김, 부북스, 2016.

클로소프스키, 피에르, 『니체와 악순환』, 조성천 옮김, 그린비, 2009.

타타르키비츠, W., 『타타르키비츠 미학사 1- 고대미학』, 손효주 옮김, 미술문화, 2005.

프렌첼, 이보, 『니체』, 강대석 옮김, 한길사, 1997.

플라톤, 『국가·政體』, 박종현 옮김, 서광사, 2005.

나승일, 『교수법가이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민혜리, 『교수법가이드』, 교육과학사, 2010

이희재, 「공자의 문답법과 개성존중의 소통방식」, 『철학연구』 제115집, 대한철학회, 2010.

“공자의 공부법을 활용한 교양 교육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희(신라대)

서원혁 선생님의 “공자의 공부법을 활용한 교양 교육 연구 - 공자의 대화법을 중심으로”를 잘 읽었습니다. 동양철학을 대표하는 공자의 대화 방식을 통해 교양 교육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성이 강조되는 교양교육의 현재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내용을 갖는 연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기 논문은 『논어』를 중심으로 공자의 학문체계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교육의 방법론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경제와 문화 등 인간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종합적인 형태로 기술된 공자의 문제의식, 즉 ‘인간의 길’, ‘인간다움의 실현’이라는 말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아가기 위한 주제들이 형언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서원혁 선생님은 대학의 교양 교육에 기능할 수 있는 공자의 대화법이 갖는 의미의 탐색을 서양의 고대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방법론으로 대화의 형식이 갖는 교육적 효과의 유의미성과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 됩니다.

서원혁 선생님은 공자의 대화법이 갖는 교육적 방법론에 관한 유의미성을 수평적 교류의 상호성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테네 시민들의 몽매함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한 소크라테스의 교육방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의 내용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대화의 방식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에는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확보되지 못한 시대의 한계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혁 선생님이 주목하는 것은 대화의 형식이 갖는 소통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여타의 다른 교육방식에 비하여 교육 주체 간에 상호적인 관계의 평등성이 확보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자의 태도는 진실과 양심에 따르자는 것에 있지 무엇인가를 숨기고 허식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 공자는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의 반응을 충분히 살피면서 그에 걸맞게 응하는 소통방식을 취했다. 자기만이 절대적이라는 태도는 공자의 소통방식이 아니다.”는 말로 대변됩니다.

공자는 문답과 논의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방식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또한, 공자는 권위와 준엄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제자의 질문에 등가적인 형태로 호응하는 눈높이 맞춤형의 대화법을 지향합니다. 더욱이, 대화에 참여하는 공자의 태도는 진지함과 더불어 꾸밈이 없는 진실된 태도로 일관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을 살피고, 이해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맞추어 소통하는 공자의 교육방식은 자기만이 절대적이라는 태도와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서원혁 선생님은 공자의 타자지향적인 대화의 교육법은 윤리와 도덕에 관한 사회적 가치와 의식이 저하된 현대의 삶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기능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인격 완성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분명, 평등의 관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화의 교육법은 소통성이 강조되는 교양 교육의 의미

를 성찰하고, 그 의미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자의 대화법이 갖는 유의미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논의를 더욱 명료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논평을 마칩니다.

1. 공자의 대화법에 관한 교육적 효과의 탐색 과정은 『논어』 속에 나타나는 대화의 형식과 내용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서 대화의 형식이 갖는 소통성은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청합니다.
2. 공자의 대화법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합니다.
3. 공자의 대화법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대학 교양 교육의 현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제 3회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교양교육혁신 학술대회

현대한국화에 대한 미술감상교육의 방향

허나영

목원대학교 조형예술연구소 연구원

■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현대한국화의 특성
3. 미술감상교육 방향의 제안
4. 나가는 글

■ 들어가는 글



한국대중음악(K-Pop),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국문화(K-Culture)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내에서도 전통이나 근대의 문화를 다시금 돌아보고 이를 동시대 문화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여겨질 수 있으나, 한국 근대문화의 흐름을 본다면, 이렇듯 전통문화를 긍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야 시작된 것이다. 더욱이 문화적 트렌드가 된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형성된 분위기이다. 이러한 점은 여전히 시각예술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나 이해에서도 드러난다.

■ 들어가는 글

단적으로말해, 우리의 그림이라 볼 수 있는 한국화(혹은 동양화)보다는 서양화에 더 익숙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07년에 이루어진 한 교사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네덜란드 풍경화 <미델하르니스의 길>에 대한 중학생들의 이해가 정선의 <금강전도>보다 높았다. 이는 사실적인 묘사와 원근법 등 서양화법에 익숙해져 있는 반면, 산수화의 표현이나 공간표현법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문화적 교육방식으로 풍경화와 산수화의 차이점을 역사·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두 그림에 드러나는 시각적 표현이 함의 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었다(김형숙, 2008).



Meindert Hobbema, <미델하르니스의 길(Avenue at Middelharnis)>, 1689년, oil on canvas, 103.5×141cm, National Gallery, London



겸재 정선, <금강전도(金剛全圖)>, 1734년, 종이에 채색, 130.7x94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국보 217호

■ 들어가는 글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이루어져 온 서구식 미술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제3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스스로를 타자화해버린 그간의 한국미술교육의 한계를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가 미술감상의 주체가 되어 한국적인 문화적 맥락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에서는 태생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현대한국화에 대한 감상을 교육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 문화적 정체성과 함께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현대한국화의 특성

■ 현대 채색화

천경자
〈청춘의 문〉
1968년
145X89
화선지에 먹, 채색
국립현대미술관



■ 현대 채색화

박생광
〈토함산의 해돋이〉
1981년, 종이에 채색
이영미술관 소장



■ 산수



운보 김기장, 〈점과 선〉 시리즈

■ 비교] 사경산수화



의재 허백련
〈산수-춘하추동〉
1940, 수묵, 국립현대미술관

■ 문자도



손동현_문자도-
스타벅스_지본수묵채색_130×16
0cm×2_2007

■ 비교] 문자도

작자미상, <문자도>,
제작연도 미상, 종이에 채색,
각각 33x53cm, 개인 소장



■ 인물화

손동현, <영웅수파만선생상>,
지본수묵채색, 190×130c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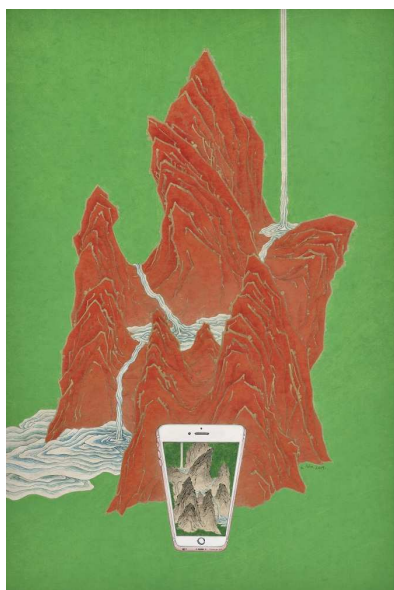


비교] 전통인물화

▪ 인물화



강세황
자화상
1782년
비단에 채색
88.7X51.0cm
보물 제59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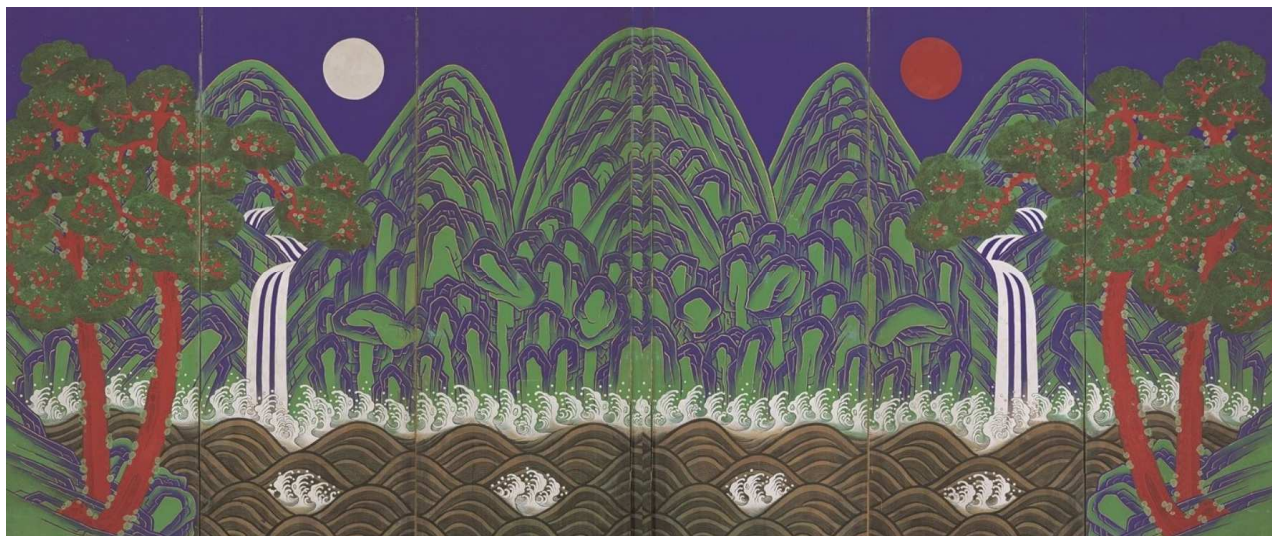
안성민_Digital delusion_01,
36x24 inches, ink, color and
pigment on mulberry paper, 2019



안성민_400_01-Its-Inside-Is-
Bigger-Than-Its-
Outside_09_medium_400



비교]



필자미상,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 6폭 병풍
19세기, 비단에 채색, 151.4 × 94cm, 국립고궁박물관



남현주_낙원_도침장지에
수간채색II_45.5×53cm_2009



남현주_그의 방_도침장지에
수간채색II_61×73cm_2009

■ 민화



작자미상, <까치와 호랑이>
제작연도 미상, 종이에 채색,
75x110cm, 개인 소장

■ 책거리



작자미상, <책거리>
제작연도 미상, 종이에 채색,
320x163cm, 개인소장

■ 네오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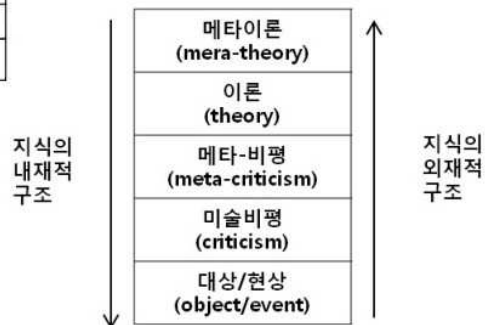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Isle of the Dead〉, 2014



■ 3. 미술감상교육 방향의 제안

〈표 2〉 미술 비평 교수법 비교

학자	비평의 단계					
펠드먼		기술	분석		해석	평가
파인스타인		기술	분석		은유적 해석	평가 선호
프레이터	준비	기술	기능	분석	해석	평가
앤더슨	반응	기술			해석	평가



*출처 : 손지현(2012), 미술 감상·비평 교육의 교수법 비교
연구,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Vol.33, 93-120.

〈그림 2〉 미적 탐구의 수준(Ecker, 1974: 113)

3. 미술감상교육 방향의 제안

· 비교문화적 감상교육

“앤더슨에 따르면, 서양의 형식주의적 비평은 유럽중심의 가치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주변적 문화와 실용적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비서구권 예술품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비교 문화적 비평은 작품을 통해 작가가 속한 본래적 문화를 찾는다. 비교 문화적 비평은 “어떤 한 문화가 인간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모든 통찰력을 제공할 수는 없다”(Anderson & Milbrandt, 2005: 122)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다문화주의적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술작품의 본래적 성격과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와 상황과 주제와 매체 등의 다양한 폭넓은 문맥들의 조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비평과정은 관객과 학생들을 작품창작과 사회적주변상황들과 가치와 관습과 제도들의 구조를 알게 한다.”(고은실, 2008, 92)

3. 미술감상교육 방향의 제안

표 1. 감상에 대한 미학, 비평적 관점에서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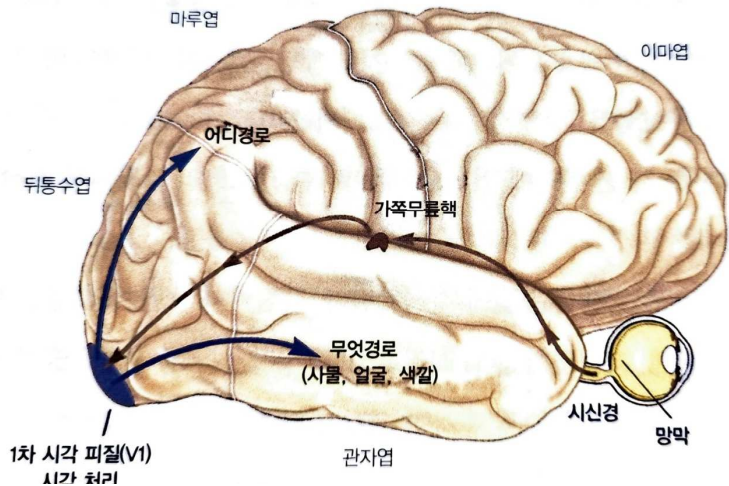
구 분		교수자 중심 감상	학습자 중심 감상
미 학	미적 관점	작용미학	수용미학
	중 점	창작자 중심	감상자 중심
	대표 학자	• 하르트만: 전경→후경 • 파노프스키: 전도상학→도상학→후도상학 • 아른하임: 표면 구조→심층 구조	• 임가르텐: 작가→작품→수용자 • 이저: 작가→텍스트→수용자→작품
	비평 관점	구조 비평	구성 비평
비 평	과 정	선형의 절차적 단계	비선형의 순환적 단계
	대표 학자 및 특징	• 켈트만: 묘사→분석→해석→판단 • 브라우디: 감각적 특성→형식적 특성→기술적 특성→표현적 특성 • 앤더슨: 반응→지각적인 분석→개인적인 해석→맥락적인 고찰→종합	• 게이건: 문제 인식→문제의 명료화↔가설설정↔가설추론↔가설검증↔가설적용

*출처 : 이화식(2015), 미술교육에서 감상의 두 가지 의미와 방향, 예술교육연구 2015, 제13권, 제3호, 3

3. 미술감상교육 방향의 제안

- 시각인지
-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

*출처 : Eric R. Kandel(2016), *어쩔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 이한음 역, 프시케의 숲.



3. 미술감상교육 방향의 제안

“지각에 대한 기호학적 관심은 코케(J.-Cl. Coquet)의 현상학적 기호학(La sémiotique phénoménologique)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전기 그레마스의 연구를 객관의 기호학(sémiotique objectale)이라 비판하면서 보다 주체(Sujet)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호학적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후설(E. Husserl)과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를 비롯한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향은 비단 코케 뿐 아니라, 그가 비판했던 그레마스 역시 ‘정념의 기호학(La sémiotique des passions)’에서 현상학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그레마스는 발화 텍스트의 심층을 이루는 의미의 구조들이 발생하는 그 기원으로 몸, 그리고 지각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의미가 분절되기 이전의 미분화되어 있고 연속된 의미의 시초(ad quo)에 위치시켰다. 더 나아가 이를 가시적인 것(le visible)으로 확장한 그의 제자 폰타니유(J. Fontanille)의 경우 메를로-퐁티의 고유한 신체(le corps propre)의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허나영, 2015)

3. 미술감상교육 방향의 제안

- 의미분절
- 텍스트로서의 예술작품



*출처 :

Barthes, R.(1957). Mythologies. 정현 옮김(1995). 『신화론』. 현대미학사.

Barthes, R.(1968), From Work to Text. trans. by Stephan Health(1977). New York: Hill & Wang.

예시



안성민_Digital delusion_01,
36x24 inches, ink, color and
pigment on mulberry paper,
2019

예시

손동현, <영웅수파만선생상>,
지본수묵채색, 190×130c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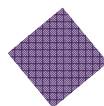
4. 나가는 글

동시대미술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게 여겨진다. 그 매체나 표현 방식이 과거에 비하여 다양하기 때문이며, 표현하는 주체인 작가가 작품에 부여하는 의미보다는 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자의 의미해석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작품이 가지는 의미의 장은 보다 다층적이며 복잡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에게 더 익숙해야 할 우리 전통을 기반한 현대 한국화를 감상하는 것이 서양의 그림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작품의 형식을 중심으로 한 감상보다는 맥락을 기반으로 한 비교문화적인 감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시대미술로서 현대한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지각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와 아른하임의 시각적 사고 개념을 토대로, 후기 그레마스와 폰타니유의 기호학적 방식과 함께 바르트의 후기 기호학 개념인 신화적 의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방식들은 여러 문화맥락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현대한국화를 감상하는 데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인종, 다국가, 다문화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대미술을 감상하기 위한 미술교육의 방향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실(2008). 미술비평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2(2). 85-107.
- 김연희(2009). '질적 탐구'로서의 미술비평. 미술교육논총. 23(1). 293-322.
- 김형숙(2008). 비평적 탐구: 비교문화적 맥락에서 미술비평과 감상교육,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1-20.
- 김형숙(2015),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의 변천과 미술비평방법론 개선방안,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Vol.42, 77-101.
- 손지현(2012), 미술 감상·비평 교육의 교수법 비교 연구,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Vol.33, 93-120.
- 이은적(2001), 미술비평과 감상교육,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Vol.12, 223-232.
- 이지연, 강주희(2018), 예비 초등교사를 위한 미술 감상 및 비평 교육의 방법론 탐구, 미술과 교육 19(2), 73-94
- 이화식(2015), 미술교육에서 감상의 두 가지 의미와 방향, 예술교육연구 2015, 제13권, 제3호, 1-21
- 허나영(2015), 시각기호학에 있어서 지각의 문제, 미학예술학연구 제44집, 135-162.
- 허나영(2020), 현대한국채색화의 네오파 경향과 의미, 조형교육 75집, 379-395.
- 루돌프 아르하임(2004),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에릭 캔델(2016), 어쩔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 이한음 역, 프시케의 숲, 2019.
- Barthes, R.(1957). Mythologies. 정현 옮김(1995). 『신화론』. 현대미술사.
- Barthes, R.(1968), From Work to Text. trans. by Stephan Health(1977). New York: Hill & Wang.



감사합니다.

허나영 propriusny@gmail.com

“현대한국화에 대한 미술감상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우선미(한남대)

선생님의 현대한국화에 대한 새로운 감상법 제시는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기존 미술교육에서 한국화에 대한 감상법은 특정한 관점 아래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서양과의 비교관점에서 형성된 부분은 나름의 성과도 있지만, 차이점과 공통점 아래 수용되는 것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즉, 한국화는 서양과의 비교관점에서 차이점 혹은 공통점으로만 수반되지 않는 특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은 현대한국화의 감상을 위해 메타적 접근법을 고심한 듯합니다. 우선 모더니즘적 형식주의비평을 벗어난 텍스트로서 예술을 설정하여 열린 의미체계로서 현대한국화를 보였고, 수용자의 관점에서 형성된 지각과정을 통해 의미해석으로 확장되는 도식으로서 새로운 미술감상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롤랑 바르트의 신화적 해석은 작품을 텍스트 개념으로 대치하여 작가의 독창적 산물로서의 작품이 아닌 문화 속 인용들로 짜여진 텍스트로서의 작품 읽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서 저자 중심의 비평보다는 독자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독자 중심의 열린 비평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는 천재적 예술가와 결부시켜 작품을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롯이 작품이 중심이 되는 해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전통적 한국화, 특히 민화와 같은 경우, 오히려 작가중심적이라기보다는 작품이 형성하는 상징과 반복되는 형식이 중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한국화는 작가를 배재하고 텍스트로서 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2. 바르트의 신화적 해석에는 이미 수용자의 지각적 인지과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르트의 논의 자체가 개인의 지각적 과정에서 출발하여 해석에까지 이르는 전반적 인지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자기수용과정이라는 현상학적 개념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바르트의 텍스트적 읽기는 작품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닌 감상자가 문화적 코드를 토대로 의미를 새롭게 창출해나가는 자유로운 비평방법으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